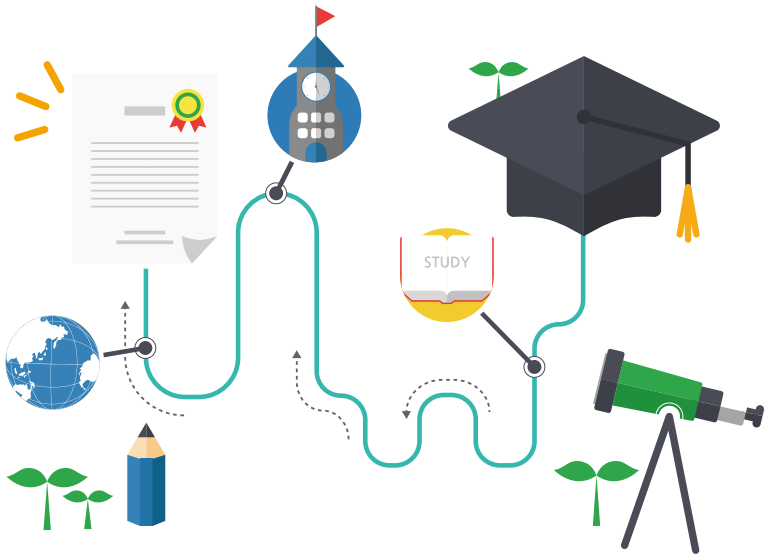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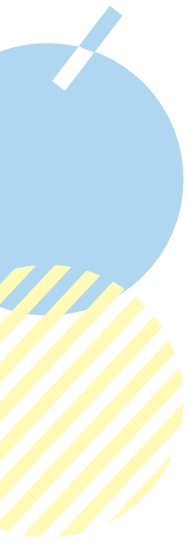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2017 장학생 수기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목차

2017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 수기

05	세종시와 함께 이룬 나의 꿈	김민지
09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서형석
13	개선광정 각골명심	신승희
15	진정한 공부변태(變態)	홍가은
19	다시 돌아온 봄날	김수진
22	장학금이 나에게 준 것은	하선영

2017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 수기공모전 수상내역

 **최우수**

세종시와 함께 이룬 나의 꿈

김민지

 **우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서형석

개선광정 각골명심

신승희

 **장려**

진정한 공부변태(變態)

홍가은

다시 돌아온 봄날

김수진

장학금이 나에게 준 것은

하선영



세종시와 함께 이룬 나의 꿈

김민지

오래 전부터 저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밝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10여년 간 하나 뿐인 꿈을 바라보며 공부하였고, 첫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일명 불수능이란 단어가 언론에 널리 쓰이던 해였고, 저는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할 수 있는 집안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결국 저는 지방의 모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초등교사라는 꿈을 접고 하루 빨리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여 어려운 집안에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진학하고서도 저의 오랜 꿈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고, 한번만 더 교육대학 진학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부모님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반수 준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약 4달간 신발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보았지만 겨우 문제집 몇 권과 인터넷 강의 몇 강을 들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낮에는 신발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 수업을 다녔고, 밤에는 학교 도서관에 가 아무도 모르게 수능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쁜 생활을 계속하며 낮아

진 자존감과 함께 교육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거란 확신 또한 서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꿈을 포기할까란 생각이 들었지만 포기하기엔 너무나 소중한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혼자서의 힘으로는 제대로 된 수능 준비가 힘들다는 현실에 좌절하였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담히 저의 목표를 이해해주는 부모님이셨지만 아마 무수한 걱정들이 함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대학에서는 4년 장학생으로서 대학 등록금 걱정은 들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커다란 짐을 지어드린 것 같아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휴학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보다 더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능준비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렇게 많이 오른 수능 성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외국어고등학교를 나와 남들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었던 내신 점수는 재수생이 지방교대에 진학하는 데에 있어서 커다란 문턱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동안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신성적을 덜 보는 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모아놓은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입학금에 보탬 수 있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등록금이 걱정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와 다름없던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으로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등교육과로의 복수전공은 경쟁이 치열한 탓에 전교생 중 단 10명 내외만이 선발될 수 있었고, 학점의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이 되는데 그 해의 예상 평점평균의 합격선은 4.5만점 기준으로 4.47이었습니다. 이는 1년 간 30학점을 기준으로 모든 과목 A+에서 단 한 개만의 B+이하의 과목이 존재한다면 선발되지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몇 년간의 수능준비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시작된 학점 경쟁이었습니다. 그 해의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저희 과 내에서만 총 8명이

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때, 어려운 집안 사정에 반수까지 한 터라 부모님께서 당장 2학기 등록금 걱정부터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여러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휴학을 하고 돈을 모아야할까’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우연히 세종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 찾아온 희망적인 소식에 느꼈던 감정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저만큼이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부모님 또한 잊혀지지 않습니다.

반수할 때와 똑같이 초등교사라는 꿈을 향한 재도전이었지만 이번 도전에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며 했던 학업은 참 힘든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저의 꿈을 향한 도전의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꽤나 높은 목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학점 4.47, 4.48도 아니고 학점 4.5를 만들자 였습니다. 이는 생각보다도 더욱 힘든 목표였습니다. 수능공부와 학점관리 모두 힘들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학점관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였던 고등학교 시절과 대다수가 대학생생활을 즐기는 상황에서의 학점관리는 천지차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수할 때와 달리 아르바이트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다는 현실에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학부생 모두가 즐기는 축제, 여러 대외활동 등의 유혹에서 벗어나 무거운 전공책이 든 책가방을 메고 도서관에 가면서도 지금 이 현실에 참 감사했습니다. 다른 생각없이 학업에만 매진하며 학업에만 체력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보다 가벼웠던 2학기가 끝이 나고, 최종학점을 받아보았을 때 어찌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목표했던 학점 4.5가 떠 있는 화면을 말없이 몇 분이나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든 생각은 그동안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저 자신에 대한 뿌듯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하루빨리 취업하길 바라셨을텐데도 내색 한 번 없

이 저의 꿈을 응원해준 가족들, 그리고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세종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감사함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저에겐 최종목표까지 임용고시라는 큰 산이 하나 더 남아있지만 초등교과를 배우게 된 이 현실까지도 행복한 하루하루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보다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종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종시에서는 학생들의 꿈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며 그 지원을 통하여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1년전의 저도 우연히 세종시 인재육성재단에서의 장학생 선발 공고를 보지 못하였다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목표한 학점 4.5를 이루지 못하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학점 4.5를 목표로 정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세종시와 함께 세종시에서 초등교사로 생활하며 저같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세종시의 지원을 기회로 삼아 더욱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등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종시의 교육현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싶다고 조용히 꿈꾸어 봅니다.

오랜 꿈이었던 초등교사, 그리고 한 번의 실패. 마지막 기회였던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으로의 도전. 그리고 이 때 나타난 든든한 지원군 세종시.

최종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서 있는 지금,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와 준 제 자신, 어려운 가정 형편을 내색 한 번 없이 응원해준 가족들, 그리고 더 큰 세상을 꿈꾸어 볼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세종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말에 장학금 수혜를 받은 서형석이라 합니다.

세종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으로 인해 드넓은 자부심과 아무리 가난한 환경이라도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장학금으로 인해 받은 사람들의 꿈을 한층 더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저는 항상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사도 좋지 못했지만, 그 상황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집은 세종시에 산다고 해서,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고로 교도소에 계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지, 지금까지도 생사를 알지 못 하는 지경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렇게 19년을 살았습니다. 고1때부터 고3,지금까지 제 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시고 오시면 때리고, 저는 그걸 맞고, 매일매일 죽고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때는 당진에서 있었는데, 아버지와 살때엔 겨울마다 연탄난로를 피웠습니다. 그게 오히려 보일러값보다 더 싸고, 얼어죽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강 하나, 책 하나 사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3때 수능특강도 잘 못 샀습니다. 책을 살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프신 할머니께 들어가는 약값만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말할 용기조차 없어, 학교

선생님께 부탁해서 책도 얻고, 덕분에 급식도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어, 그나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곳이 바로 “공군사관학교”였습니다. 일반대학의 학자급대출도 받을 엄두도 나지 않고, 오히려 조부모님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는 것 같아, 꼭 전액국비지원에 군인이라는 적성에 잘 맞고, 그래도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 곳을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시기상으로 늦었기에, 남들 만큼 하면 당연히 떨어지기에, 약처럼 밥먹을때나, 걸어갈때도, 단어장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한다는 과외는 상상도 못하고, 인강도 정말 어려워져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EBS강의를 듣고, 매일 듣고 복습했습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수학교 중학교 내용도 몰라서 중학교 수학을 빠르게 정리하고, 문제 수가 많은 썬, 기출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국어는 하루에 2시간씩 마다 기출문제를 분석을 반복했으며, 영어도 듀오 3.3이라는 영단어를 하루에 70 문장씩 외우고, 구문은 천일문 교재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모르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15시간씩 공부하고, 문제를 많이 풀고 양치기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동경의 눈빛을 보낼 때 쯤 저희 집에 놀러오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도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에는 아예 굶거나 것은 아침과 저녁은 삼각김밥 2개로 버텨야 했습니다. 먹으면서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 6월달에는 그 전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 금전의 장벽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나마 모아둔 돈도 다 공부하는데 써버렸기에, 조부모님께도 손을 벌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은 다 저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었기에 “나는 여기서 끝인가보다”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포기하려는 순간,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공부를 포기 하지 말라 하시면서, 세종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하니 이곳에 지원을 해보라 하셔서 지원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덕분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질 좋은 수험서와, 인터넷강의 프리패스를 사서, 시기가 좀 늦었지만, 조금이나마 남보다 한층 앞선 수험생활을 하면서 부지런히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재단의 장학금이 있었기에 지금, 항상 “나는 왜 이모양일까?” 하는 비관적이고 매사에 걱정만 앞섰던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장학재단이 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 저도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그 꿈을 인재육성재단의 깊은 뜻을 통해 잘 알게 됐습니다. 비록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진 못하고 재수를 하게 됐지만, 장학재단이 준 소중한 값진 그 뜻, 꿈을 항상 잃지 말라는 그 마음. 절대 변치 않고, 오랫동안 간직하려합니다. 지금도 항상 조부모님을 도와 집안일도 병행하면서 장군이라는 꿈을 버리지 않고, 이번수능에 전액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는 대학에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를 지원하여 국가에 쓰임 받는 인재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시간이 날 때 마다 공부법 관련 멘토로 활약하며,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학생들에게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공부법을 알려주거나, 교재를 알아봐주면서 학교나 다른 지역의 친구들의 장학금도 알아봐주기도 했습니다. 예를들어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먼저 ebs 수학에 완포자의 중학수학을 듣고, 동시에 썬 수학1을 풀고 오기를 권하며, 영어도 단어와 문법이 중요하니, 단어는 꼭 듀오 3.3이라는 단어책을 지문과 함께 해석하면서 보기를 권장했습니다. 문법도 단기간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수능특강으로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표시하고, 외우고, 상담도 해주며, 동시에 천일문 기본을 풀게 하는등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보여줬습니다.

저보다 지방에서 어려운 삶을 사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덕분에 항상 저도 편한길을 걷지 않고, 안일한 길보다는 험난한 고통이 도사리는 신독의 길을 가고자 노력,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길. 강요하지 않은 길. 저는 그 길을 걷기 위해 매일 매일 생각하고, 저의 가치관

을 파악합니다. 항상 세종의 인재, 더 나아가 국가의 인재로서 성장하기 위한 발
돋움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보답을 받았으니, 국가에 귀속되어 보답을 하는 인
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저보다 더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들에게 장학금을 부담없이 기부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학업에 정진할 계획입
니다. 저에게 주신 큰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장학재단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개선팡정 각골명심

신승희

“개선팡정은 좋도록 고치고 올바르게 잡는다.”라는 뜻이고, “각골명심은 마음 속 깊이 새겨서 잊지 않음을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제가 살아온 삶 같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 중학교에서는 그저 평범한 중~하위권 성적만 유지하는 무대 뒤의 나무 같은 아이였습니다. 애들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찍 공부를 포기했던 거 같습니다.

저는 꿈이 웹툰이나 그림 관련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합리화 용도로 쓸 줄을.

그림을 그릴 때 부모님께서서는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제가 하고 싶은 분야의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하고 싶은 걸 위해 노력하는데 뭐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 전 어려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았지만, 게임하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A4용지에 그림을 하나 그려놓거나 다 그려 놓은걸 방금 막 다 그린 것처럼 하여 부모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게임을 주야장천 했습니다. 그 결과 중2 때 성적은 72명 중 67등으로 하수구에 떨어트린 동전마냥 푹 떨어졌습니다.

성적이 안 좋다보니 제 삶에 대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겨울 방학 때 생각했

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가축과 뭐가 다른가하고.’

마음을 다시 잡고 성실히 생활하였지만, 그림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일종의 입스같은 것입니다. 중 3때 그림에 흥미가 다시 붙을 때 만화창작과가 개설되어있는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싶었지만 내신 성적이 부족한 거 같아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중학교 때 한 미숙한 행동 때문에 받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마음 한 편으로는 씁쓸했으며 이때 다시는 ‘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세종하이텍고에 입학한 후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지만 정을 붙이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2학년 때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으로 컴퓨터와 태블릿을 샀습니다. 그림그리기가 쉬워지면서 인터넷에 그린 그림이나 만화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2016년 10월부터 만화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배틀코믹스”라는 플랫폼에 오버워치나 롤 같은 게임만화, 제가 겪었던 일상, 풍자 의식의 흐름대로 그린 그림을 그려서 올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보는 사람이 적었지만 1년쯤 되니 점점 읽는 사람도 많아지고 어느정도 인지도가 쌓였습니다. 제가 만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 웹툰 지망생입니다. 그림을 독학하다보니 아직은 미숙하지만 전 지금의 제 그림 실력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비록 웹툰 작가가 되는 것이 어렵고 험난하다고 해도 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고 그 꿈을 향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에 장학금을 받지 않았으면 저는 꿈을 꿈으로만 찢을 겁니다. 지금은 계속 꿈이었던 웹툰 작가를 현실로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세종시 육성재단에서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너무 기뻐고 글을 쓰게 되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글을 쓸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세종시 인재육성재단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공부 변태(變態)!

홍가은

“어쩔 가은이는 공부를 그렇게 잘해~”, “너도 가은이 반만 닮아봐라 줘.” 초등학생 시절 내가 주변에서 들어왔던 이야기이다. 사실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던 나는 시험기간만 되면 교과서를 달달 외웠었다. 공부를 왜 하는지도,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른 채 오로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공략’만을 찾아다녔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고 나는 정말 내 스스로 공부를 잘한다고 믿어왔었다. 그런 껍질밖에 없었던 자신감을 가지고 이사를 왔고 새로 생긴 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서 그 시절 내 자신감의 원천이었던 그 칭찬들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점점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초등학생 때와는 다르게 많은 양의 시험범위와 한 층 더 어려워진 내용들이 나를 점점 옥죄어 왔다. 그런데 “미운 아이 딱 하나 더 준다”고 했던가. 나에게 그토록 부담이 되었던 공부와 친해져 보기로 결심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 첫 시험공부를 위해 책상 위에 놓인 과학책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과학! 이제 너랑 친해지겠어!’라고 외쳤던 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부끄럽지만 그 한마디가 과학과 나 사이의 벽을 허물어주었던 것 같다. 과학책에 담겨져 있던 내용들을 친구와 대화하듯 편하게, 즐겁게 이야기를 만들

면서 공부했다. 그 때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다. 항상 나에게 부담감을 주었던 그 공부가, 무엇인가의 수단이 되었던 그 내용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었다.

중학교에서 매일 새로 배운 내용이 있다면 집에서 인형을 세워두고 내가 친구가 된 듯이 친근하게 설명해주었다. 그 때 ‘내가 설명을 잘 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이해한 거야’라고 생각했던 내 스스로가 신기했다. 유리창에 보드마카로 내가 선생님이 된 듯 가르쳐주기도 하고 동생에게 이해시키기도 했다. 한 번은 부모님께서 내 수업의 학생이 되어 질문도 해주시고 나는 답변을 하면서 배운 내용을 재밌게 승화시켰다. 그렇게 1년을 공부했고, 이것이 점점 나의 공부 비법이 되어갔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있었다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공부방법인 것일까’였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맞는 것인지, 겉으로만 완벽하게 보이는 공부는 아닌지, 너무 산만하게 공부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많은 질문들이 나를 괴롭혔었다. 그 때까지는 아직 공부 잘한다는 칭찬을 바랬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 걱정을 확신으로 바꾸어 준 것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준 장학금이였다. 공부와 친해지겠다는 나의 야심찬 계획은 성공했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장학금의 목적이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주고 앞으로도 너의 능력을 더 키워보라고 격려해주는 것에 있다면 나는 아주 알찬 첫 장학금을 받은 것이었다. 장학금은 내 스스로 올바른 공부 방법을 찾아낸 것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사실 내 생애 처음으로 받아본 장학금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로 발견한 공부의 즐거움은 지금까지 공부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려고 공부했던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마 그 때부터가 나의 ‘공부 변태(變態)’가 시작되었던 시기였을 것이다.

첫 번째 장학금을 받은 이후 나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동시에 버릇을 하나 가지게 되었다. 무엇 하나를 배워도 더 깊고 자세히 알고 싶어서 선생님들께 설

새 없이 심화적인 내용을 여쭙어 보러 다녔었다. 그 때마다 친구들은 ‘무엇 하러 그런 것까지 공부 하나며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해도 충분하다’고 얘기했다. 3년 전의 나였다면 쉽게 수긍했을 테지만 어째서인지 그 얘기를 듣는 나는 자존심도 상했고 무엇보다 ‘시험’을 위해 공부한다는 그 얘기가 너무도 좋지 않게 들렸다. 더 이상 학생들은 공부를 진정한 배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것이다.

오기가 생겼던 나는 더욱 더 내용을 깊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시험을 보는 데에 충분한 공부량이 1이라면 나는 2나 3정도까지 어려운 내용을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했다. 1의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시험은 괜찮게 볼 수 있었지만 간혹 가다가 더 고민했던 어려운 내용 때문에 틀린 문제들도 많았다. 그러나 아쉽거나 후회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진정한 공부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남은 두 번의 시험을 그러한 방식으로 알차고 재밌게 공부해왔다.


그렇게 스스로 어려운 길을 자처한 나에게 어느새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두 번째로 받았던 장학금은 첫 번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다가왔다.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던 내게 환한 빛이 되어 주었던 것이 첫 번째 장학금이이라면, 이번에는 활활 불을 태우던 나에게 기름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던 것이 두 번째 장학금이였다. 둘 다 격려와 응원을 준 것은 맞지만, 이번에는 시작부터 열정적인 느낌이 물씬 났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이 맞다고, 잘 하고 있다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듯했다. 다시 한 번 확신을 얻은 나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다. 이제부터 내 공부의 목표는 ‘깨닫는 즐거움’이라고 말이다.

중학생 시절, 친구들은 나에게 ‘공부벌레’라고 했었다. “공부가 지겹지도 않나”라고 묻던 친구들에게 난 언제나 “즐겁다. 깨닫는 즐거움이 너무나 뜻깊다”고 대답했었다. 이걸 자랑이 아니라 내 공부 변천사에서 얻었던 값진 교훈이다. 두 번의 격려와 확신이 중학교 3년 생활을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었고 그렇게 나는 고등학생이 되어 같은 교훈을 바라보며 잘 지내고 있는 중이다. 공부가 의무가 되어버리고 절망의 씨앗이 된 많은 학우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나의 공

부 변태(變態)를 말이다. 오해하기 딱 좋은 어휘이기는 하나 실상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른 무엇에 견줄 수 없는 만큼 가치 있다.

단순암기로 시작했고 오로지 칭찬을 바라며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나의 공부는 장학금이 주는 격려와 확신을 통해 견고하고도 값진 경험으로 탈바꿈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공부와 친해져 보겠다는 오기로 무작정 한 걸음 나아갔고, 나만의 공부법을 찾고 나서는 더 당당히 한 걸음, 그리고 진정한 공부의 목표를 정하고 나서 한 걸음, 그렇게 차근차근히 발전해나갔다.

동물이 성장하는 시기에 있어서 짧은 시간동안 크게 형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변태(變態), 껍질 안에서 조용히 그렇지만 치열하게 스스로를 성체로 바꾸고 있는 여러 곤충들처럼 나 또한 중학교 생활 3년간 성실하게 고민하고, 도전해보고, 달려왔었다. 나의 노력만큼이나 멋진 역할을 해주었던 세종특별자치시의 장학금! 스스로를 갈고 닦아나가는 나를 격려해주고 북돋아주었던 꿈같은 기회였다. 이런 세종시의 좋은 장학 제도가 다른 학생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을 소망하며 수기를 마친다.



다시 돌아온 봄 날

김수진

어린 시절, 제 손에는 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면 늘 다른 세상이 펼쳐지니까요. 집안 사정상 많은 곳을 놀러 다니지 못했던 제게 책은 색다른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였습니다. 가끔씩 언니가 도서관에서 빌려다 주는 책들은 언제나 흥미로웠고 매력적인 책들뿐이어서 나이를 좀 더 먹자 학교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책 속에 빠져 살며 제가 읽었던 책들처럼 매력적인 글을 쓰는 작가를 꿈꿔 나갔습니다. 홀로 끼적여보며 그럴듯한 글을 완성할 때면 자신감이 조금씩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차근 차근 길을 밟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늘 제 꿈의 한편으로 드리우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작가는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에게 장래희망을 털어놓으면 씩 좋지 못한 반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금전적인 문제였죠. 저는 농담 속에 담긴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꿈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하던 터라 그런 일이 있을 적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에 수입은 상관없다며 대꾸했지만 그런 자신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닳아만 갔습니다. 머리가 자라며 집안의 사정을 점차 피부로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함은 점점 자라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때문에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마음은 스러지고 말았습니다. 자연스레 책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작가에 대한 열망이 시들어 가던 2015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마음처럼 쌀쌀한 가을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서는 고민에 잠겨있던 저를 복도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일까 근심했지만 이유는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세종특별자치시장학회에서 모범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으려면 시청으로 가야한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혼자서 가야한다는 사실이 걱정 되었지만 예상외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쌀쌀한 외부와는 달리 시청 내부가 따뜻해서 의외라고 느꼈습니다. 딱딱하고 사무적일 거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눅거리기만 하던 저는 안내를 받아 쉽게 대강당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대강당 내에는 저와 같은, 여러 장학금을 수여받을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로 알려진 아이도 더러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서 장학금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감정이 몰밀 듯 밀려들었습니다. 시상 받는 순간에도 실감이 나지 않았으나, 막상 장학증서를 받게 되니 실감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몇 번인가 장학금을 탄 적은 많았지만 가장 큰 금액이었기에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장학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간단히 정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액수가 액수인지라 쉽사리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버스의 유리창 너머로 서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가 저를 부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끌리듯 서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당연하게도 새 책들이 수도룩했습니다. 그득한 책 내음을 맡자 꼭 도서관을 거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익숙함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받은 장학금으로 가장 먼저 책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읽어보자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책 다음으로는 가격대 때문에 쉽사리 바꿀 수 없었던 따뜻한 패딩을 샀습니다. 언니와 함께한 백화점 나들이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보다 센스가 좋은 언니 덕에 저는 제 맘에 꼭 드는 패딩

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로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패딩보다 더욱 저를 데워주었던 건 역시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것이 꺼져가던 열정에 불씨를 당겨준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적성이 풀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인 셈이죠. 그렇게 저는 다시 작가를 꿈꾸게 되었고, 지금도 꿈을 향해 정진 중입니다. 장학회에서 제게 준 장학금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기를 남기며, 저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보낼 수 있게 해준 장학회에 감사함을 보내고 싶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하던 때에 도움의 손길을 받은 것에 말이죠. 덕분에 저는 꿈을 잃고 출기만 하던 겨울을 지나, 다시 꿈을 꾸게 된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따뜻한 봄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눈부신 봄이 오리라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멋진 글을 쓰기를 바라며 손에 책을 들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나에게 준 것은

하선영

내가 장학금을 받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해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할 때 나는 많이 놀랐던 것 같다. 우리 집은 딱히 부유한 형편도 가난한 형편도 아닌 평범한, 내가 공부를 하고, 우리 가족이 생활하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의 가정이다. 6학년 초기, 우리 가족은 세종으로 이사를 하면서 나는 세종으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조금씩 적응을 해가면서 학교생활을 즐기기 시작할 때쯤 나는 초등학생을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다.

중학생이 되던 첫날, 새로운 마음으로 새 교복을 반듯하게 입고, 집을 나섰다.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가족들의 응원과 함께 중학교에 입학했다. 중학교 입학을 하고 나니 설레서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친구들과 친해지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교복에도 점점 적응을 해갈 때쯤. 슬슬 중간고사 시험기간에 접어들었다. 주변 친구들은 첫 시험이라며 긴장한 듯 공부를 시작했다. 나 역시 중간고사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중학교에서의 첫 시험에 나는 설레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부담이 더 컸던 것 같다. OMR 카드에 마킹 하는 것, 서술형 답안지에 따로 적어야 하는 것, 등등 모든 것이 다 어색하고, 서툴렀다. 나의 친구들 또한 중학교의 첫 시험이 생소했는지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으로 서로 잘 보았느냐고 묻느라 바빴다.

시험이 끝난 것은 좋았지만 막연히 기뻐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 시험 과목인 수학을 잘 보지 못한 듯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내가 선생님의 말씀으로 모든 친구들 좋아할 때, 누구보다도 기뻐했다.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한다.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모든 것이 서툴렀기만 했던 내 중학교에서의 첫 시험이 끝난 날. 담임 선생님께서로부터 나는 한 가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에는 좋아서 기뻐했다. 담임 선생님께 설명을 듣고 교무실을 나온 순간 나는 현실을 직시 했다. ‘내가 장학금을 받을 만한 점수가 되는 성적이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지나갔다. 왜 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마지막 교시인 수학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마음속으론 무엇인가가 걸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일단 받게 되었다는 점에,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기분 좋게 하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중학교에서의 모든 것이 어색하고 서툴던 나의 첫 시험이 끝나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과 함께 수다 떨고, 놀면서 내가 장학금과 중간고사를 잊어갈 때쯤에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왔다.

그때 당시 느낀 감정이라고는 딱 두 가지 밖에 없다. 속상함과 부끄러움. 내 손에 들려있는 종이 한 장. 성적표가 나에게 전해준 현실. 혼자서 공부하면서 더 열심히 했던 첫 시험의 점수는 대부분의 과목들은 평균을 유지했다. 여기까지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독 수학은 점수가 많이 낮았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무언가가 걸렸던, 마음속에서는 이미 눈치 챘을 성적인데도 내가 더 속상했던 이유는 그 성적보다도 낮았기 때문이다. 수학성적에 너무 속상했던 나는 그날 집에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르겠다. 자신에게 실망한 점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점수가 하락할 수 있을까. 시험 마지막 날에 장학금 얘기를 들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적표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장학금도 같이 떠올랐다. 부끄러웠다. 수학성적이 이 정도로 낮는데 내가 장학금을 받을만한 성적이 되는 걸까? 그

때 당시는 속상함, 부끄러움과 더불어서 자신감도 떨어졌다. 나는 지금까지도 다녀본 학원이라곤 피아노 학원이 다인만큼,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서 도서관을 다니면서 공부해왔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할 수 있었으니, 중학생이 되어서도 당연하게 될 줄만 알았다. 허나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이후 6월 3일 나는 아빠와 함께 장학금을 받기 위해 차를 탔다. 그렇게 나는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받았다. 이후 친구들에게 딱히 장학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내 성적이 부끄러워서. 내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후 2학년이 된 나는 성적이 1학년 때 비해 더 떨어져버렸다. 2학년의 첫 시험.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 부모님께서서는 정 힘들면 학원을 다녀라. 학원을 다니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니게 해줄 수 있다며, 1학년 때 내 성적을 보고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처음이니, 서툴러서, 어색해서 그럴 수 있다며 나를 다독여 주셨다. 스스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감에 젖어있던 날들이 가족들이 있어서 나는 점점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웠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던 2학년의 첫 시험, 그러나 역시 나의 공부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성적은 점점 떨어지기만 했다. 2학년의 첫 시험은 80. 90점대였다. 이후 2학년의 두 번째 시험. 내 시험점수들이 대략 10점씩 떨어져서 80, 70점대로 푹 떨어졌다. 가면 갈수록 자신감은 떨어졌지만, 스스로를 다잡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 스스로를 위로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급격히 하락한 성적에 대한 내 마음은 다잡기는 쉽지 않았다. 부모님을 실망시킨 것 같아서 나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게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어영부영 보내고 있을 때였다. 어느새 내가 중학교에서 맡는 두 번째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여름방학 때 나는 방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내가 받아놓은 상장을 정리해 놓은 파일을 펼치게 되었다. 그 상자에는 성적표, 피아노 상장, 효행상, 표창장 등등 여러 상장이 차곡차곡 예쁘

게 정리되어 있었으나, 가장 눈에 띄었던, 상장들 사이에 끼여져 있던 내 장학증서가 눈에 보였다. 꺼내서 하나하나 다시 눈으로 읽어보니, ‘내가 장학금도 받았었지.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가끔은 장학금이 생각났다. 그다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1년 전에 받은 장학금은 이미 지나간 일일뿐이지. 받으면 뭐해. 지금은 받을 성적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내 자신을 탓하고 있었을 때, 나는 나를 다시 한 번 되돌아봤다. 어쩌다가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을까. 1학년 자유학기제때 너무 들떠서 놀기만 했던 것일까? 이렇게 하나하나 되돌아보니 내가 너무 내 자신, 스스로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지. 다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 스스로 노력이 부족해서 점점 성적이 떨어진 것 일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이 장학금이란 것이 나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감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장학금을 통해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던 것인지 나는 점차 나를 바꿔갔다.

처음엔 문득 ‘내가 장학금을 받은 사실은 몇 명밖에는 알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장학금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장학금은 내가 그만큼 공부에 대해 노력했다는 증거이면서도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내 자신감의 원동력이 되어버렸다. ‘내 자신의 성적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힘들어 하고 있을 때 나는 괜히 장학금 탓으로 넘겼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적이 떨어져서 내 스스로에게 탓을 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 장학금이었던 것 같다. 긍정적으로 보면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부끄러워야 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야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처음에는 장학금이 나에게 준 것은 성적에 대한 부담감, 실망감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내가 장학금을 통해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장학금은 나에게 절망감, 실망감 같은 우울한 생각들이 아닌 내가 더 열심히

히, 더 즐겁게 공부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나에겐 무엇보다도 소중한 증서가 되었다. 예전에는 내가 장학금을 받은 이유조차 생각을 하지 않고 받았으니 마음으로는 걸렸어도 좋구나 싶었다. 하지만 요즘은 내가 장학금을 받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제는 내 성적이 부끄럽지 않다. 장학금까지 받았었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거지. 떨어지면 올라가면 되는 거지. 성적 떨어졌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내 스스로가 변함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받아드리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나는 겁이 나서 내 스스로가 변함을 거부한 것이 아닐까 싶다. 변함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드렸다는 것은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요즘에는 내가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선생님께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지금부터라도 무작정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려 노력한다. 나에게 알맞은 문제집을 직접 찾아보고 사기도 했다. 나는 학원이 아닌 나 자신을 믿고 공부하는 사람 이니까. 나를 믿어보기로 했다. 선생님께도 여쭙보고 조언을 듣고 여러 가지 팁도 얻으면서 선생님과 친해지는 것은 물론 나 스스로에게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문제집을 풀어도 틀린 문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절망했던 내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내가 되어간다. 틀린 문제를 더 보면 된다. 틀리면 고치면 된다, 모르면 알면 된다. 오히려 시험이 아닌, 실전이 아닌 연습에서 모르는 점을 찾고, 고칠 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던가. 그렇게 스스로를 위해서 노력하다보니 내 스스로가 발전하는 것이 느껴진다.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조언을 듣고, 실천에 옮기려 하는 내 자신이 참 예쁘다.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스스로를 진정으로 토닥이고 위로 할 수 있게 해준데 있어서는 장학금이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도 장학금을 통해 성장하고 행복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장학금이라는 이 세 글자가 만들어낸 한 단어로 인해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을 했다면, 실망을 딛고 일어서는 계기도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장학금을 받을 인재들이 많겠지만, 혹시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장학금을 한 번씩 더 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장학금을 통해서 나에게 자신감과 행복을 선물하길 원한다. 내가 장학금을 받은 이유는, 장학금이 내게 준 것은. 크진 않지만 조그만한 발전을 향한 시작의 발판, 불씨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아직까지 나는 장학금을 나를 발전시키라고,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하늘에서 보내 준 선물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꿈 희망 비즈네

함께하는 꿈과 희망, 세종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단
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주요사업

장학사업

- 세종시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

평생교육사업

- 시민의 평생학습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 배움과 나눔의 학습문화 확산



2018년 장학사업 개요

분야	대상	인원	장학금	총 지급액
총 계		615		679,000
성적우수장학금	고등학생	200	700	140,000
	대 학생	50	최대 2,000	100,000
모범장학금	중 학생	80	300	24,000
	고등학생	100	700	70,000
	대 학생	100	최대 2,000	200,000
특기적성장학금	초, 중, 고	30 예산내	1위 700 2위 500 3위 300	15,000
희망장학금	중, 고, 대	10	2,000	20,000
지역혁신인재장학금	대학생 및 일반인	15	2,000	30,000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 및 의사자 자녀 지원	중 학생	10 예산내	300	20,000
	고등학생		600	
	대 학생		1,000	
해외탐방 장학금	대학생	20	2,000	40,000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대학생 및 휴학생	예산내	최대 1,000	20,000

성적우수장학금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성적우수학생에게 지원 (학교장 추천)

모범장학금

- 교육비지원 사각지대에 처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업(읍면동장 추천 또는 재단 직접신청 및 기타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정 자녀

특기적성장학금

- 관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 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학교장 추천)

희망장학금

- 천재지변, 상해, 가정형편 및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의 학생에게 긴급 지원

지역혁신 인재장학금

- 지역사회와 공공부문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고 보다 나은 세종시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등 세종시 발전을 이끄는 시민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 및 의사자 자녀 지원

- 세종시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 및 의사자의 자녀들이 어려움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해외탐방 장학생

- 다양한 해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양성 위해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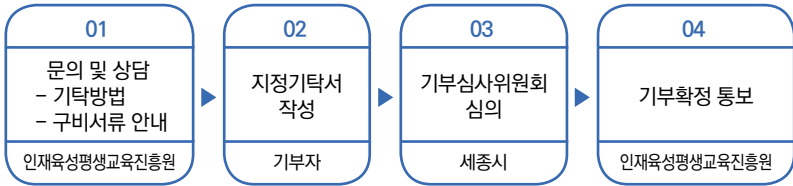
-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 받고 대출받은 사람에게 지원

※ 저소득·다문화·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자녀 우선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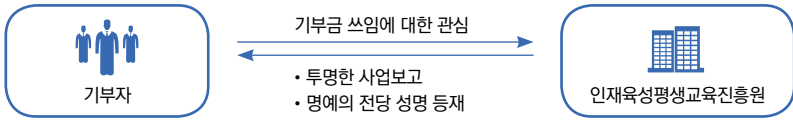
※ 부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성적우수 고등학생 및 특기적성 제외)하여야 하며, 장학금 지급관련 세부 기준은 재단홈페이지에서 공고사항을 참고하세요.

장학금 기부안내

기부 참여방법



기부자와 진흥원의 소통



함께하는 나눔으로 세종시 미래가 밝아집니다.

기부관련 궁금한 사항은 Tel. 044)866-8551, Fax. 044)866-8552
홈페이지(www.sejong.go.kr/injae.do)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세종특별자치시 대평1길 10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2017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 수기공모 모음집

발행일 2017.11.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125(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3층)

T. 044)866-8551 **F.** 044)866-8552 **H.** <http://www.sejong.go.kr/injae.do>
